

중국 시진핑 주석의 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 결과 및 시사점

(2013. 9. 23)

1 | 개 요

- 중국 시진핑 주석은 G20 정상회담(9.5~9.6, 러시아) 및 상하이 협력기구* 정상회담(9.13, 키르기즈)을 전후하여 중앙아시아 4개국 (투르크메니스탄,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, 키르기즈)을 잇달아 방문

* 2001년 창설된 지역안보기구로 중국, 러시아, 카자흐, 우즈베크, 키르기즈, 타지키스탄 6개국이 회원국임.

-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장기간 이 지역 방문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앙아시아가 중국의 미래에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의미

2 | 중국-중앙아시아 4개국간 주요 경제협력

① 투르크메니스탄 (방문기간 : '13. 9.3~9.4)

- 양국 정상은 투르크메니스탄 남동부 Mary지역의 Galkynysh 가스전* 정제설비(Gas Processing Facility) 준공식에 참석

* 매장량 26.2Tcm 규모로 세계 제2위의 가스전

- 중국은 동 가스전 개발을 위해 80억불 규모의 자금을 제공

- 9.3(화) 중국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 Turkmengaz는 연간 약 25bcm의 가스 공급계약을 체결

- 중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, 투르크메니스탄은 새로운 가스수출 루트를 확보하여 對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

- **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가스 생산국으로 대 중국 가스 수출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, 대 러시아 수출*은 점차 감소**
 - *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러시아 가스 수출은 지난 수년간 연간 10bcm 규모로 3/4 수준으로 감소
 - 중국은 전체 가스 수입의 약 51%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
 - 중국은 2009년 개통된 파이프라인(Central Asia-China Pipeline*)을 통해 2012년 20bcm의 가스를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
 - *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지역 가스를 우즈베크를 거쳐 중국 서부로 수출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총 길이는 1,833km임.
 - 중국의 투르크메니스탄 가스 수입은 2020년까지 연간 약 65bcm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, 이중 약 25bcm은 Galkynysh 가스전으로부터 생산
- 양국은 Galkynysh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우즈베크, 타지키스탄, 키르기즈를 거쳐 중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(명칭 "Line D")을 2016년 건설하기로 합의
- 동 신규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운송량은 첫째 연간 5bcm, 이후 5bcm씩 증가, 2020년까지 25bcm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
- 중국 CNPC는 Galkynysh 가스전 개발 2단계로 연간 30bcm 규모의 가스처리설비를 추가 건설할 계획
 - 동 가스처리설비 건설에 중국이 자금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으나, 세부 일정 및 자금 지원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.
- 또한, 중국-투르크메니스탄 두 정상간 회의에서는 새로운 철도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.
- 투르크-중국 양국의 교역규모는 2012년 100억불을 초과하였으며, 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

㉒ 카자흐스탄 (방문기간 : '13. 9.6~9.8)

-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(Strategic Partnership) 발전을 위한 선언문에 서명
 - 양국은 평화로운 우주개발과 석탄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상호협력, Dostyk 수력발전 단지의 공동 관리 및 2020년까지의 경제협력 계획에 대한 패키지 agreement를 체결
 - 양국 정상은 신규 가스파이프라인 개통식에 참석
 - 동 가스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건설한 총 길이 700마일의 파이프라인으로, 카스피해 연안 가스를 카자흐 남부지방으로 운송하고, 이후 투르크메니스탄 Central Asia-China 파이프라인과 연결됨.
 - 또한, 시 주석은 아스타나 나자르바예브 대학에서의 연설에서
 - 태평양에서 발트해까지 동·서·남을 운송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경제 실크로드(economic silk road) 건설 및
 - 글로벌 금융위기 완화를 위해 지역 통화를 이용한 결제의 확대를 주장
- 시 주석의 방문기간 동안 양국은 총 22개 약 300억불 규모의 교역 및 금융협약이 체결되었음.
 - 카자흐스탄 정유공장 설립, China Development Bank 및 Export-Import Bank of China 제공 Loan 등이 포함됨
- 중국 CNPC(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)는 카자흐 국영기업 KazMunaiGaz와 카스피해 Kashagan* 해상유전의 지분 8.33%를 약 50억불에 매입하기로 합의

*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보유한 유전으로 KazMunaiGaz(카자흐), Exxon Mobil, Royal Dutch Shell 및 Agip(이태리)의 국제컨소시움이 개발중이며, '13.10월부터 생산 개시할 예정

당초 미국 Conoco Phillips는 동 지분을 인도 ONGC에 매각할 계획이었으나, 카자흐 정부가 선매권을 행사하여 동 지분을 매입하여 이를 중국 CNPC에 매각

○ 현재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의 약 22%는 카자흐와 중국 합작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음..

□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 약 240억불 규모로 12.5% 증가하였으며, 2015년까지 약 400억불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

③ 우즈베키스탄 (방문기간 : '13. 9.8~9.10)

□ 시 주석의 방문기간 중 양국간 31개 프로젝트, 총 150억불 규모의 계약이 성사

○ 석유, 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우라늄 개발 사업을 비롯, 교역, 투자 및 금융 부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.

□ 시 주석은 2012년 34억불을 기록한 양국간 교역량을 2017년까지 59억불 규모로 확대하기를 요구

○ 2002년 이후 중국은 우즈베크에 약 60억불 이상을 투자하였으며, 지난해 양국 교역량은 34억불 규모에 이르렀음.

□ 양국은 기존 중국-우즈베크 가스 파이프라인 계약을 수정 체결

○ 동 수정 계약에는 우즈베크와 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새로운 투르크메니스탄-중국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이 반영

□ 우즈베크는 2011년 중국이 제안한 "Uzbek-Chinese industrial high technology park" 설립에 동의

- 이에 따라 우즈베크는 2013. 3월 시르다리아주에 "Jizzakh Special Industrial Zone" 2단지(branch)를 설립하였으며, 6월부터 휴대폰, 건설기자재 등의 제품 생산을 개시
- 또한, 양측은 동 단지내에 14개의 첨단기술제품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투자 계약에 합의
- 중국 CNPC는 유망한 hydrocarbon field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와 Murabek 가스화학단지내 가스정제설비 프로젝트에 참여할 계획
- 중국은 Development Bank of China와 Export-Import Bank of China를 통한 우즈베크과의 금융부문의 협력도 확대
- 중국 금융기관들의 우즈베크 포트폴리오는 45억불을 초과하고 있으며, 이들 자금은 보건, 교육, 에너지, 교통인프라 및 통신 관련 프로젝트 수행에 투자
- 한편, 금번 시 주석 방문중 우즈베크 재건펀드(Fund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)와 Development Bank of China는 116억불 규모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하기로 합의

④ 키르기즈 (방문기간 : '13. 9.10~9.11)

- 중국은 키르기즈 에너지 및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에 30억불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
- 동 인프라 개발에는 투르크메니스탄-중국 가스 파이프라인의 키르기즈 통과구간* 건설 소요자금 14억불이 포함
 - * 동 파이프라인 구간은 225km에 이르며 향후 2-3년내 건설될 예정
- 중국은 비쉬켄 화력발전소 및 키르기즈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에 4억불, Kara-Balta시 인근 원유정제설비 건설 프로젝트에 4억불을 각각 투자할 예정

- 또한, 기술지원(Technical Assistance) 등에 34백만불을 지원 하는 외에 10억불 규모의 직접투자 자금도 제공할 계획
- 또한, 키르기즈 경제부장은 현재 미군이 사용중이나 내년 7월 반환되는 마나스(Manas) 공항의 재건설에 중국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- 한편, 중국은 키르기즈의 2위 교역국이며, 금년 상반기 중 양국간 교역량은 22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.9% 증가

3 | 시사점

- 중국 최고 지도자의 중앙아시아 지역 장기 순방은 이례적인 것으로 중앙아시아가 중국에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시됨을 의미
 - 중국은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,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 러시아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
- 시 주석의 금번 순방을 계기로 향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, 교역 및 투자는 더욱 확대될 전망
 -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교역국이자 투자국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경제개발을 위해 중국 기업들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전망
- 향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와 중국 기업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므로, 중국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 동향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
 -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은 서방기업들의 진출이 미미한 가운데, 우리나라, 러시아 및 중국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.